

4·3시의 의미 흐름과 문학적 형상화

강 영 기*

차 례

- I. 프롤로그
- II. 제주문학에 나타나는 4·3에 대한 기억
- III. 4·3시의 의미 흐름과 문학적 형상화
 - 1. 참혹함의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
 - 2. 해원과 문학적 형상화
 - 3. 상생과 평화 그리고 문학적 형상화
- IV. 에필로그

I. 프롤로그

역사와 문학의 공통점은 인간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적·사회적 삶의 양상을 밝히는 데 있다. 하지만, 역사는 문학과 비교할 때 개연성과 함께 우연성을 지닌다. 문학은 역사가 지닌 개연성을 모방하며, 작가는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개별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을 인과관계를 갖도록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문학은 역사의 우연성을 문학의 필연성으로 환원시킨다. 이 과정에서 문학은 역사에 비해 더욱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다.

역사는 문학에 나타나는 하나의 소재이며 반영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작가는 역사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의 결과를 문

*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작품으로 형상화한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분명, 작가가 지닌 시각의 차이는 존재한다. 인식의 차이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다르게 형상화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를 작품의 전체적 소재로 사용하는 작가는 당연히 역사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그 압력에 굴복한 작가는 문학작품을 쓰지 않고 역사를 서술하게 되며, 그 압력을 극복한 작가는 역사를 서술하지 않고 문학작품을 쓰게 될 것이다.¹⁾ 그러므로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서 작가가 '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가? 또는 문학작품을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에 드리워진 작가의 역사 인식을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4·3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제주 문단의 시인들은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며, 이 과정에서 4·3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3을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학적 인식 방법과 관계된다. 그것은 4·3에 대한 역사, 정치, 문화적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4·3을 인식한다. 그것은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해석하고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대의 역사적 실상은 그에 대한 학문적 연구 성과와 더불어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II. 제주문학에 나타나는 4·3에 대한 기억

문학은 역사적 사실을 전제로 한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 문학작품이라도 현실을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문학은

1) 김병택, 「4·3회곡 또는 장르 설정의 당위성」 『한국문학과 풍토』(새미, 2002), p. 41.

과거와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역사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기억 형성과 내용들은 문학적 측면에서 공식역사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과거의 단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과거가 현재까지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 그 현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억의 문제가 끊임없이 문학적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역사의 격동성과 비극성에 기인한다. 일제강점, 6·25전쟁, 4·19혁명, 5·18 광주항쟁 등 역사 위에 점철된 일련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그 연대기를 살아간 개인에게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겨나 결코 지울 수 없는 과거로 각인된다. 그러한 고통의 체험은 문학의 지속적인 주체로 떠오름은 당연한 것이다.²⁾ 그 대표적인 예가 안희남³⁾, 김원일⁴⁾, 박완서⁵⁾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역사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제주문학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4·3에 대한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 작업이다.⁶⁾ 제주의 작가들은 4·3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에서 문학작품을 통해 그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작품에 형상화된 내용이나 소재에 작가의 상상력보다는 사실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사실성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기억이다. 기억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쓰느냐는 결국 작가의 역사 인

2) 김영환, 「기억으로서의 문학」,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삼지원, 1998), p. 62.

3) 안희남은 해방 직후 「오욕의 거리」(1945), 「탄광」(1945), 「쌀」(1946), 「철쇄 끊어지다」(1946), 「사선을 넘어서」(1946) 등을 통해 자신의 탄광 정용 체험을 그려내고 있다.

4) 김원일은 「어둠의 혼」(1973), 「노을」(1978), 「불의 제전」(1983), 「겨울 골짜기」(1987) 등을 통해 민족분단의 비극과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그려내고 있다.

5) 박완서는 「나무」(1970), 「조발기」(1978), 「엄마의 말뚝」(1980) 에서 전쟁체험을 통해 '나라는 개인의 희생을 그려내고 있다.

6) 4·3에 대한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의 작업은 바로 4·3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4·3 문학은 제주문학의 하위 개념을 형성하며, 4·3 문학이 지닌 서사적 근대성을 통해 제주문학의 근대성을 논의할 수 있다. [김병택, 「근대성 담론과 제주문학의 근대성」 『한국 문학과 풍토』(새미, 2002), p. 27. 참조.]

식에 기인한다.

제주문학에 나타나는 4·3에 대한 기억과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모든 장르에 걸쳐 나타난다. 소설의 경우⁷⁾ 역사의 참혹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는 현기영⁸⁾으로 대표된다. 그는 「순이 삼촌」(1978)에서 억울한 양민 학살을 문제 삼아 잊혀지기를 강요당해 왔던 4·3의 비극적 역사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또한, 현길연⁹⁾과 오성찬¹⁰⁾ 역시 4·3을 소재로 참혹함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들의 형상화한 4·3의 역사는 결국, 기억을 통한 역사의 문학적 환원 작업이다. 그래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작가 정신과 함께 문학의 여러 장치들을 통해 기법이나 형식에서 완결미를 보여준다.

시의 경우¹¹⁾에도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주는 참혹감과 그 역사에

- 7) 현기영, 현길연, 오성찬의 작품은 다음의 각주를 통해 밝힘으로 생략하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고시홍의 「도마칼」(1985), 「계명의 도시」(1989), 「작은 모스크바」(1994), 한립화의 불턱(1987), 「매고일지」(1987), 김석희의 「망울림」(1988), 「고여있는 불」(1989), 오경훈의 「당신의 작은 촛불」(1988), 「세월은 가고」(1989), 「호랑가시나무 추억」(1992), 이석범의 「어둠의 입술」(1988), 김창집의 「섬에서 태어난 죄」(1995~2000)등이 있다.
- 8) 현기영은 「해룡 이야기」(1979), 「도령마루의 까마귀」(1979), 「길」(1981), 「잃어버린 시절」(1983), 「아스팔트」(1984), 「거룩한 생애」(1991), 「목마른 신들」(1992), 「쇠와 살」(1992), 「마지막 테우리」(1994) 등을 4·3에 대한 기억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9) 현길연은 「귀향」(1982), 「우리들의 조부님」(1982), 「지나가는 바람에」(1984), 「먼 훗날」(1984), 「신열」(1984), 「우리들의 어머니」(1985), 「짙 울음 소리」(1985), 「불과 재」(1985), 「껍질과 속살」(1986), 「미명」(1987), 「무흔굿」(1987), 「관광요정 백록원 문영옥 마담 소전」(1988), 「집 없는 혼」(1988), 「미로여행」(1988), 「어떤 비밀」(1990), 「한라산」(1995) 등을 통해 4·3의 역사를 소설로 형상화한다.
- 10) 오성찬은 「사포에서」(1982), 「풀무에 관한 보고」(1984), 「공동묘지에서」(1984), 「크는 산」(1984), 「단추와 허리띠」(1986), 「표해」(1986), 「뒹에 치인 세월」(1986), 「토산댁」(1987), 「이만행 소전」(1988), 「나비로의 환생」(1988), 「한라구절초」(1988), 「바람의 늪」(1989), 「보춘화의 한 뿌리」(1989), 「표류하는 세월」(1991) 등을 통해 4·3을 기억하고 있다.
- 11) 4·3의 기억을 형상화한 시집은 김용해의 『민중일기』, 김종원의 『강냉이 사설』, 문충성의 『제주 바다』 외 여러 시집, 오승철의 『개달기』, 김광렬의 『가을의 시』, 강덕환의 『생달타기』, 고성기의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오영호의 『풀잎만한 이유』, 김순이의 『미친 사랑의 노래』, 현주하의 『사랑하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작품들이 나타난다. 이들 작품들은 한이나 이품의 정서를 바탕으로 4·3의 역사를 독자들에게 하나의 아픔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회곡의 경우¹²⁾ 역시 4·3의 형상화를 통해, 제주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깊은 질곡 속에서 영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평론¹³⁾ 역시, 4·3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탐색하는 문학적 재현의 노력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혀내고 있다. 또한 4·3 문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예리하게 점검함으로써 4·3 문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문학의 각 장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4·3에 대한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현실과 문학적 글쓰기 사이의 관계,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현실과의 관계 사이의 긴장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준다. 현실의 체험과 언어, 육성의 기록, 그리고 역사와 문학 간에는 단순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

는 사람과 나의 거리에는, 김영홍의 『부재증명』, 신승행의 『섬바다 숨비소리』, 『문풍지』, 현춘식의 『유배지로 가는 바람』, 고정국의 『겨울 반딧불』, 윤봉택의 『농부에게도 그리움의 있다』, 강중훈의 『오조리, 오조리 땀꽃마을 오조리야』, 김관후의 『섬 곶 떠난 내 애비』, 김수열의 『어디에 선들 어떡야』, 홍성운의 『숨은꽃을 찾아서』, 김석교의 『뉘 달래려다 그대는 뉘 넣고』, 김경훈의 『한라산의 겨울』, 『고운 아이 다 죽고』 등이 있다.

12) 4·3을 형상화한 회곡 작품은 장일홍의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세요』(1988), 『강신무』(1990), 『붉은 섬』(1991), 강용준의 『폭풍의 바다』(1993), 하상길의 『느영 나영 풀땀 살개』(1995), 장윤식의 『목마른 신들』(1995), 문무병의 『동이풀이』(1997), 김경훈의 마당극 대본집 『살짜기 읊서예』(2000) 등이 있다.

13) 4·3 평론에 해당하는 작품은 김영화의 『허구와 진실』(1992), 『상상의 자유로움』(1992), 김병택의 『역사적 진실과 시적 진실』(1999), 『4·3회곡 또는 장르 설정의 당위성』(2002), 『4·3 소설의 유형과 전개』(2002), 『역사와 현실의 변주』(2002), 송상일의 『한라산의 역사와 전사』(1999), 양영길의 『통일열망시대의 4·3문학』(2001), 문혜원의 『4·3을 소재로 한 시들의 유형과 특징』(2001), 박미선의 『4·3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기』(2001), 고명철의 『4·3 소설의 현재적 좌표』(2002), 김진하의 『4·3 사건의 증언과 시』(2003), 강영기의 『4·3 시의 시대정신』(2004) 등이 있으며, 김동윤은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을 통해 4·3 문학 전반에 대한 논의와 4·3 문학 반세기를 돌아보고 있다.

기 때문이다. 4·3 문학의 특징은 역사와 문학이 결합된 장르라는 것, 따라서 기억을 통한 역사 인식과 문학적 형상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긴장이 발생한다.¹⁴⁾ 그 긴장은 작가에게 역사를 서술하지 않고 문학작품을 쓰게 하는 힘이 된다.

제주 4·3은 분명, 한국 현대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항쟁과 수난의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수만 명이라는 사실은 4·3이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말해준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발굴 사업을 통해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4·3이 지닌 정신적 영역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을 형상화하는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할 때 가능하다.

Ⅲ. 4·3 시의 의미 흐름과 문학적 형상화

4·3 문학의 흐름은 크게 '피상적 접근 단계의 4·3 문학',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의 4·3 문학', '다양화·종합화 단계의 4·3 문학'으로 나타난다.¹⁵⁾ 이 속에서 4·3에 대한 문제 인식은 '민중 수난, 피해 의식, 민중 생활사, 무장대 활동, 좌우 이데올로기, 미국 관련성'¹⁶⁾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4·3 문학의 흐름과 인식은 4·3 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당시를 겪은 제주도민에게는 유사한 4·3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4) 김진하, 「4·3사건의 증언과 시」, 제주작가 엮음,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도서출판 각, 2004), p. 83.

15) 김동윤은 4·3 문학의 흐름을 「순이 삼촌」과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세 단계로 나눈다. 즉 4·3이 발발한 시점에서부터 1978년 현기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발표되기 전까지를 「피상적 접근 단계」로, 「순이 삼촌」이 발표된 시기부터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를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로, 6월 항쟁 이후 현재까지를 「다양화·종합화 단계」로 나누고 있다.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 p. 12.] .

16) 김동윤, 위의 책, pp. 36~47.

기억은 과거의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다. 기억은 늘 현실의 존재조건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한다. 기억은 현실인식을 전제로 한다. 현실은 언제나 과거와의 연속성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참모습은 언제나 과거 속에 묻혀 있다. 그러하기에 현재의 진정한 존재에 대한 자각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 기댈 때 가능한 것이다.¹⁷⁾ 여기에서 작가에게 나타나는 인식은 역사 인식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바로 역사 인식이다. 작가는 역사 인식을 통해 현실의 상황을 과거라는 시간 구조에 빚대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작가의 인식은 필수적으로 작품에 드리워진다.

이러한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글에서는 4·3이라는 역사를 소재로 한 시작품을 토대로 4·3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과 그 의미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1. 참혹함의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

기억은 고정된 역사적 순간에 대한 재발견이 아니라 사건 이후 사회생활을 통해 다시 내린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다. 그러므로 기억은 현재의 필요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과거의 이미지를 선택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역사적 서술의 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¹⁸⁾ 하나의 세대가 지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때, 다음 세대들의 기억은 그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체험자 등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 제사의례, 신문기사, 문학작품 등을 통해 형성된다.¹⁹⁾ 4·3의 기억 역시 그러하다. 다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예이다.

17) 김영환, 「기억으로서의 문학」,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삼지원, 1998), p. 57.

18) 김성례,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4·3 제50주기기념사업회 간행, 『제주 4·3 연구』(역사비평사, 1998), p. 247.

19) 권귀숙, 「제주 4·3의 기억들과 변화」, 4·3 연구소 편, 『4·3과 역사』(각, 2003), p. 178. 참조.

군인들이 후레쉬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을 집합시켰으니까 아직 어두웠던 새벽 5시계였을 겁니다. 군인들은 주민들 손을 뒤로 돌려 결박시킨 후 마치 굴비 워듯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밧줄로 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한바퀴 도니까 주민 모두가 묶이게 됐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찰과 해변마을 대동청년단이 마을에 온 적이 있지만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폭도가 있는 곳을 가리키”라고 했지만 누가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요. 우리는 결박당한 채 폭도를 찾아 마을 주변을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다. 새벽부터 굶은 채 하루종일 그 짓을 하다가 오후 5시경에야 다시 주막집 앞으로 돌아왔지요. 군인들도 처음엔 우릴 죽일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지 한때 결박을 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을 일렬로 세워놓고 소면 9명까지 죽는다”거나, “어른은 짝소리 없이 죽는데, 애들은 두세번 앙앙 울다 죽는다”는 등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러다 다시 결박당했는데 나는 손을 앞으로 하여 묶였습니다. 그때 군인 한 명이 어디론가 무전을 치더니 “너희 10분내로 총살된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연대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곧 애월리 쪽에서 군인차가 올라왔지요. 난 급히 결박을 풀어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이 서로 경례하는 사이에 숲으로 뛰었습니다. 잠시 후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군인들은 시신 위에 식량과 이불을 덮어놓고 불을 지른 후에야 가 버렸습니다.²⁰⁾

애월면 소길리 원동 마을은 무차별 강경진압작전이 막 개시되던 1948년 11월 13일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린 마을이다. 인용 글은 국가권력에 의해 원동 마을의 사라져가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의 국가권력은 단지 폭도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을의 노인에서부터 4살 난 어린아이까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을 무차별 총살로 사살하고, 마을까지 불 태워 없애는 만행을 저지른다.²¹⁾ 이렇게 국가권

20) 김남보 증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도서출판 선인, 2003), p. 389.

21) 이날의 희생자는 중산간을 지나다 이 마을 주막에 잠시 머물던 사람까지 희생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중 확인 된 원동 주민은 이두익(64) 김기용(60) 김승홍(58)

력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집단으로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비단 에월면 소길리 원동뿐만 아니라 곤홀동, 웃인다라, 해안동 리생이, 오라동 어우늘, 노형동 함박이굴, 영남마을, 물터진골, 다량쉬 마을, 자리왓, 빌레못, 무등이왓 등 제주 전지역에 해당하는 84개 마을²²⁾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참혹함의 기억은 작가에 의해 다음 시와 같이 형상화된다.

죄 없는 죄인들 살던 마을
 불타 사라졌다 수백 년 살아온 마을
 세월이 약이라지만 그 마을
 깊은 주검으로 남아 때로
 찾는 이들 눈시울 적시게 하지만
 겨우 살아남은 이들 흩어져 살지만
 억울하게 죽음 당한 원혼들 구천 떠돌지만
 사라진 마을이여
 어디쯤 있어
 눈짓조차 없는가
 — 문충성, 「사라진 마을은 어디쯤 있어」 부분

인용 시를 통해 시인은 마을 사람들을 ‘죄없는 죄인’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죽어가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폭력에 의해 죄 없이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의 한이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다. 죽음의 한과 살아있는 슬픔의 교차는 “사라진 마을이여/어디쯤 있어/눈짓조차 없는가/명탕구리 바람만 거세게 불어오는데”를 통해

현두병(50) 김길홍(49) 양이룡(48) 이무생(양이룡의 아내) 고병규(43) 양정생(여, 41) 강기송(40대) 김유홍(40) 허홍(여, 40대) 이달호(여, 36) 강창수(31) 강창권(29) 강창욱(28) 강창욱의 처(26) 김귀한(28) 양운용(28) 김성만(여, 24) 고임생(여, 22) 홍성규(22) 고태원(21) 김기휴(21) 양춘희(여, 21) 강공부(20) 현창하(20) 장봉호(여, 19) 임세옥 고남옥(여, 16) 양춘생(여, 16) 현봉완(14) 고남주(7) 강창욱의 아들(4) 등 34명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도서출판 선인, 2003), p. 419.]

22) 제주도교육청, 『아픔을 딛고 선 제주-제주4·3사건교육자료집』(제주도교육청, 2004), p. 27.

더욱 비극적으로 형상화된다. 그래서 시인은 불타버린 마을 어느 한 군데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며 죄 없이 죽어간 죽음의 역사와 불타버린 마을의 역사를 기억한다. 그 기억은 세월이라는 약으로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의 역사이다. 다음에 인용된 시는 원동 마을에서 느낀 사라짐의 가벼움에 관한 이야기이다.

언젠가 나도
왜, 라는 물음도 없이
죽음이라는 절차도 없이
사라질지 몰라
검은 그림자가 내 등뒤에 깔리고
☐키 한 방이면
그렇게 사라질지 몰라
사라짐에 모든 사람이
많은 의혹을 오랫동안 가져도
오랫동안 침묵할지 몰라
— 김규중, 「원동 마을2」 전문

시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과 ☐키로 가볍게 지워 버리는 현대의 습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사라짐의 가벼움을 강조한다. 그래서 시인은 “언젠가 나도 왜, 라는 물음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느낀다. 폭력의 상황과 컴퓨터라는 현대 문명의 상황이 갖는 공통점은 살아있고 없음이 너무나 쉽게 결정되는 가벼움이다. 그래서 폭력의 그늘에서 느끼는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현실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는 시인의 감정은 서로 일치한다. 이러한 감정의 일치는 시인에게 “몰라”의 반복을 통해 비극적인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게 한다. 다음은 참혹함의 기억과 문학적 형상화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나는 대한청년단 분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정기보고를 하러 지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젊은 여자를 훑박 벗겼어요. 임신한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 습니다. 정 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 속으로 찔러 넣 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 주임은 그 짓을 하 다가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던 상태라 흙이 들썩 들썩 했습 니다.²³⁾

인용 글은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젊은 여자를 죽이는 과 정을 통해 국가권력의 폭력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도 국가권력에 의해 보 호받아 마땅한 임신한 여자를 보호와는 상관없이 처참하게 죽이는 과정을 증언함으로써, 당시 상황의 처참함과 국가권력의 폭력을 상징처럼 담아낸 다. 이렇게 증언된 폭력적인 당시의 모습은 다음에 인용된 시를 통해 더 욱 비극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래 덩다 이거지?
 벗어
 어때 눈은 내리지
 저기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올래?
 애 배서 무거워 안 된다고?
 뛰라면 뛰지 웬 잡소리야
 야 이년 사지를 묶어
 어디 보자
 이 총대가리가 잘 익었나 보자
 오호
 별장계 잘 구워졌네
 니넨 구멍이 얼마나 깊은가 볼까
 어때 뜨거운 것이 좋다며?

23) 고봉수 증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도서출판 선인, 2003), p. 419.

그래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니 서방 것도 이렇게 뜨겁디?
이년이 벌써 싸부렀네
한 번 더?
더 깊게 더 뜨겁게 해달라고?
...(중 략)...
이 흙 이불 삼아 덮고
편히 자야지
안 그래?
어허 이불을 차지 말라니깐

그래 그래
잘자라

— 김정훈, 「뜨거운 것이 좋아?」 부분

이 시는 화자의 독백적 어투를 통해 고문의 처참함과 인권 유린을 형상화한다. 그래서 시인은 고문의 이루어지는 상황의 흐름과 그것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는 임신한 여자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시킴으로써 4·3 시기 제주도민이 지닌 존재 인식을 이야기 한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상징하기 위해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물음을 제목으로 사용한다.

국가권력의 폭력적 모습은 화자의 고문 모습에서 더욱 잔인한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니년 구멍이 얼마나 깊은가 볼까/어때 뜨거운 것이 좋디며?/그래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지/니 서방 것도 이렇게 뜨겁디?/이년이 벌써 싸부렀네/한 번 더?/더 깊게 더 뜨겁게 해달라고?”로 표현되는 고문의 모습은 인간존엄의 가치는 완전히 무시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 대한 묘사는 “이 흙 이불 삼아 덮고/편히 자야지/안 그래?/어허 이불을 차지 말라니깐”을 통해 참혹함의 강조로 나타난다. 동물적 감각으로 팔딱거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시인은 그저 담담하게 그려

냄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처지의 임산부를 아무런 인권적 가치 없이 여기는 국가권력의 모습을 풍자한다. 그것은 “그래 그래 잘자라”라는 표현을 통해 그 의미가 강화된다.

이상의 내용처럼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은 집단과 개인 모두를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시인에 의해서 때로는 참혹하게 형상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담담하게 그려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의 참혹함에 대한 기억이라면, 다음은 무장대의 폭력을 기억한 내용이다.

1948년 12월 15일 밤 12시를 넘겨갈 무렵, 한림면 두모2구에 무장대가 들이닥쳤다. 사건이 나던 날 밤에도 주민들은 민보단을 중심으로 길목마다 보초를 섰다. 그러나 아직 성을 쌓지 않았을 때라 무장대는 쉽게 마을로 침입할 수 있었다. 매일 밤 두모지서경찰 1명이 순찰을 돌았는데 그 날만은 오지 않았다.

무장대는 동향을 살피기 위함인지 마을 어귀의 한 집을 불태우면서 ‘양민들은 나와서 불을 꺼라’고 외쳤다. 이 밖으로 나왔던 김경석 노인이 살해됐다. 박정생 여인은 불끄라는 외침에 요강을 들고 나섰다. 예로부터 오줌을 뿌리면 불이 번지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무장대는 박 여인도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했다. 무장대는 곧 마을을 점령한 채 식량을 약탈하고 일부 가옥에 불을 지르며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두모1구에 소재한 두모지서의 경찰과 고산리 주둔 응원경찰대가 출동하자 무장대는 나팔소리를 신호로 부리나케 퇴각했다. 습격부터 퇴각까지 한 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이었지만, 며칠 후 부상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해 이 날의 사건으로 주민 13명이 희생됐다.²⁴⁾

인용 글은 1948년 12월 15일 밤에 이루어진 무장대의 폭력을 증언하고 있다. 이 글처럼 무장대의 폭력 역시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참혹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주도민에게 무장대의 폭력 역시 용서받을 수 없기는 마

24) 김옥윤 증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도서출판 선인, 2003), pp. 440~44.

찬가지이다. 다음은 무장대의 폭력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무장대의 야만행위도 용서받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도련에서는 아들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늙은 모친을 야산 굴속으로 끌고
가서 큰 바윗돌로 움직이지 못하게 가슴과 배를 눌러 압사시켰다

아라리에서는 한 중학생이 무장대 습격 당시 피신하려다 집에 놔둔 책을
가지러 갔다가 발각되어 금산공원 부근에서 손발이 잘려 살해되었다

도두리 대동청년단장은 1948년 4월 1일 무장대에게 잡혀가 생이오름 부근
에서 말뚝에 박혀 죽었다

삼양에서는 장정 하나를 우물에 빠뜨려 큰돌과 작은돌로 우물 가득 던져
넣어서 살아 나오지 못하게 했다

월정리에서는 무장대 협조를 강요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손마디부터 차례
로 온 몸을 잘라 나갔다

봉개리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사람을 산 채로 땅에 묻었다

중문리에서는 우익인사의 부친을 칼로 난자해서 죽였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 김경훈,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전문

시인은 무장대에 의해 죽어간 사람들의 상황을 그려낸다. 그런데 시인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폭력의 양상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무장대와 토벌대 둘 전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시인은 여러 유형의 죽이는 방법을 시어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의 참혹함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학살은 어느 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도련, 아라, 도두, 삼양, 월정, 봉개, 중문”등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제주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음을 밝혀낸다. 결국,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주는 의미는 당시 제주도민의 겪은 아픔이다. 시인은 독자들에게 이러한 시어를 통해 참혹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상상력을 제시한다.

4·3 당시를 보면 토벌대와 무장대 사이에서 제주도민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제주도민들은 존재의 상실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산비해’, ‘무색무취’의 상태, 삶에 대한 공허의 상태가 나타난다.

비산비해-

산도 말고 바다도 말라

아래 붙으면 위에서 당하고

위에 붙으면 아래서 당한다

무색무취-

아무 빛깔이나 냄새를 피우지 마라

낮엔 대한민국

밤엔 인민공화국

날 밝으면 토벌대가 무섭고

땅거미 가리면 무장대가 무섭다

...(중 략)...

아버지는 목은가름 집에서 몸져누어 지내다가

토벌대 총에 맞아 죽었고

아들은 마을 보초를 서다가 무장대 습격 때

칼 맞아 죽었다

이쪽 저쪽이 다 무서워 산에 들어 피신하던 삼촌은

누군지 모를 사람들에게 죽어 시체도 찾을 수 없었다

— 김경훈, 「곰도 무섭고 범도 무서운」 부분

이 시의 제목인 “곰도 무섭고 범도 무서운”은 당시를 겪었던 사람들이 말 중에 ‘곰도 무섭고 범도 무서운 세상’에서 차용된 시어이다. 즉, 토벌대인 군인·경찰도 무섭고 무장대도 무섭다는 말이다. 낮에는 토벌대가 마을을 장악해 ‘폭도 혐의자’라 하여 총살하고, 토벌대가 물러간 밤에는 무장대가 들이닥쳐 ‘반동분자’라 하여 숙청하는 상황을 빗대고 있다. 이런 아이러니의 상황은 이 시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아버지는 토벌대에 총

맞아 죽고, 아들은 무장대에 칼 맞아 죽는 참혹함의 상황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아무 빛깔이나 냄새를 피우지 마라/낮엔 대한민국/밤엔 인민공화국/날 밝으면 토벌대가 무섭고/땅거미 가리면 무장대가 무섭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시인의 표현 속에는 비극적 상황의 아이러니가 담겨짐은 물론이다. 상황의 아이러니를 통해 시인은 궁극적으로 당시 제주도민의 삶의 더없이 참혹했음을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들은 폭력에 의해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인들은 4·3을 참혹함의 기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시인들의 4·3에 대한 역사 인식 태도는 사태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문학적 형상화 작업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 시인들은 아이러니기법, 화자의 반어적 어조나 담담한 어조, 현대문명과의 비교, 참혹함의 정서 등을 형상화의 방법으로 삼고 있다.

2. 해원과 문학적 형상화

사태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문학적 형상화의 작업이 주는 참혹함의 기억은 몇몇 시인들로 하여금 해원을 담은 시를 쓰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시는 현재의 관점에서 4·3이라는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고 있으며, 원통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고 명부에나마 편안히 쉴 것을 기원하는 추모의 형식을 띤다.²⁵⁾ 다음에 인용된 증언은 ‘헛묘’를 통해 해원을 비는 내용에 해당한다.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석만 세워 명복을 빌었고,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무당을 빌어 혼을 불러다 ‘헛묘’를 만들었다.²⁶⁾

25) 문혜원, 「4·3을 소재로 한 시들의 유형과 특징」, 제주작가회의 편,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도서출판 각, 2004), p. 65.

26) 임문숙·김여수의 증언, 『아픔을 딛고 선 제주-제주 4·3사건 교육자료집』(제주도교육청, 2004), p. 355.

‘헛묘’는 시신이 묘에 없고 혼을 불러다 봉분을 쌓은 가짜 묘이다. 4·3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헛묘’라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살아 남은 자가 죽은 자에게 지닌 아픔에 대한 기억이며, 일종의 해원과 연결 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작품은 해원이 담긴 예이다.

나는 비어 있다
 나를 채우는 것은 바람 뿐
 무성히 자란 풀을 깎지 말라
 향을 피워 내게 절을 하지 말라
 내게는 굶주림
 내게는 킁킁한 동굴
 내게는 바닷고기에 뜯기는
 총 맞은 시체
 나는 비어 있다
 이제는 돌려다오
 내 사타구니를 돌려다오
 내 젖가슴을 돌려다오
 내 속 빈 창자를
 내 눈망울을 감겨다오
 내 이름을 돌려다오

— 김규중, 「헛묘」 전문

이 시는 비어 있음을 인식하는 화자의 자각에서 비롯된다. 비어있는 헛묘에 갇힌 화자는 현실의 청자에게 더 이상 봉분의 풀을 깎지 말 것과 향을 피워 절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화자의 이야기 속에는 부활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억울하게 총 맞아 죽어간 화자를 더 이상 죽음이라는 공간에 두지 않으려는 시인의 의지이다. 이러한 의지를 시인은 ‘~돌려다오’의 반복을 통해 표출한다. 또한 시인은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원통하게 죽은 자들의 한을 풀고 명부어나마 편안히 쉴 것

을 기원한다. 이를 위해 시인은 ‘헛묘’와 “들려다오”의 의미 겹침이라는 표현 기교를 사용한다. 이러한 표현 기교는 4·3으로 인해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추모와 해원을 더욱 강력하게 독자에게 내보이는 장치가 된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은 해원을 통해 4·3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현재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인간사란 뉘두리, 아프디아폰 그날 이야기
어제 오늘 하다보니 46년 됩니다
겨울 바다 속에 숨어 혈혈 살아난 북촌 해녀 고씨
수삼 년을 혼자서 가슴 막히다
열 길 물속에서 죽고
서럽게 삶게 초혼굿 빌었으나
끝내 머리 풀고 울며넋으로 떠돌다
북촌 마을 수호신 되었다지요

흐느끼는 그녀 영혼의 말씀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

용서는 하더라도 영원히 영원히 4·3을
잊지는 말아라

— 현안식, 「잊지는 말라」 부분

이 시에서 시인은 북촌 해녀 고씨의 초혼굿을 통해 4·3을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될 일임을 현재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또한 시인은 해녀 고씨가 북촌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부활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는 결국 전설적인 요소로써 시를 읽는 독자를 비롯한 청자에게 믿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당위성은 시인에게 비록 인간사가 뉘두리이지만 아프디아폰 4·3의 이야기를 오늘 까지 이끌어오게 하는 詩作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 힘은 시인에게 추모의

정과 해원을 시로 형상화하게 한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 역시 4·3 때 죽은 아버지에 대한 해원을 담고 있다.

4·3에 죽은 아버지!
 오늘이 아버지 제삿날 아니와
 봄서, 아버지 아들 딸이 다 모이고
 손주들에 손주들까지 다 모였수다
 이 술잔을 받으시곡 울분도 삼켜 봄서
 가슴에 맺힌 원한 풀어 봄서
 그 서러움, 잊어 불곡
 그 피눈물, 씻어 봄서

그 아픔 그 원한
 어떻 잊어 불곡, 어떻 푸냐고 울부짖던 아버지!
 아버지 모심을 무사 모릅니까
 그때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리곡
 그때 생각만해도 피눈물 남쭈다
 그러나 이제랑 풀멍 살게 마썸
 봄이 오면 꽃도 보곡
 봄이 오면 풀도 보곡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 살게 마썸

— 김용해, 「아버지 전상서」 부분

이 시에는 4·3 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로 인해 생겨난 시인의 한이 서려있다. 그리고 그 한이 풀리기를 시인은 갈망한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한을 풀기위한 방법으로 “아버지 전상서”라는 편지를 쓴다. 이러한 시의 설정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죽은 아버지와의 대화가 된다. 그 상상력 속에서 아버지는 한 맺힌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그 아픔 그 원한 어떻 잊어 불곡, 어떻 푸냐고 울부짖”음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울부짖음의 주체는 시인이다. 그래서 시인은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리

고 피눈물 나게 아픈 것이다. 이러한 아픔은 궁극적으로 시인에게 자신이 지닌 한이 풀려야 아버지의 한도 풀린다는 인식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손주들의 손주들에 해당하는 시간의 흐름에서 언제까지 가져갈 한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아버지에게 “봄이 오면 꽃도 보곡/봄이 오면 풀도 보곡/그런 세상으로 돌아가 살게 마썸”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은 부활을 통한 해원을 보여준다.

녀 달래려다 그대는 녀 놓고
 길 찾으려다 길 잃었네
 길 찾으려다 그대는 길 잃고
 녀 달래려다 녀마저 놓았네
 아직도 한란산록 해매는 거친 발길
 불진어 백록담가에 묻어주리
 불술아 제주 바당에 뿌려주리
 …(중략)…
 잃어버린 이름, 그대 이 길로 오라
 놓아버린 녀 달래어 어허 녀 들라
 이어이여 이어이여 수화로만 오십 년
 숨 죽은 생명을, 울음 죽인 영가를
 끈은 길에 모두 불러
 녀 살아 춤추게 하라

— 김석교, 「녀 달래려다 그대는 녀 놓고」 부분

이 시에서 길을 잃고 녀를 잃은 주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4·3 때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는 시인 자체이다. 무고하게 희생된 자의 측면에서 볼 때, 길을 잃고 녀를 잃었다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의미한다. 한편, 시인의 측면에서 보면 해원의 목적이 달성됨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해원의 길을 찾으려다 길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길을 잃은 주체가 둘로 나타나는 이유는 4·3이 주는 엄청난 역사의

한 때문이다. 그래서 시인은 “불길어 백록담가에 묻어주리/불술아 제주 바닷에 뿌려주리”라는 표현을 통해 4·3에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아픔을 달랜다. 그 아픔은 오십 년동안 수화로만 전해지는 역사이다. 이러한 4·3에 대한 시인의 인식은 “숨 죽은 생명을/울음 죽인 영가를/끝은 길에 모두 불러/넋 살아 춤추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해원 한다. 그것은 부활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을 통해 시인은 엄청난 4·3의 아픈 한과 그 한의 풀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해원은 살아남은 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뜻을 받들어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원을 바탕으로 한 시인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은 독자들에게 4·3은 잊지 말아야 할 당연한 인식이 된다. 또한 시인의 이러한 형상화 작업은 4·3 시의 의미 영역을 한층 더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3. 상생과 평화 그리고 문학적 형상화

4·3의 역사는 더 이상 참혹함의 기억, 아픔의 형상화가 아니다. 참혹함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상생과 평화가 앞으로 전개될 제주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4·3을 다루는 문학이 더 이상 참혹과 아픔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건을 아픔의 생채기로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작가는 4·3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로움을 통해 모든 인간에 대한 따스한 마음을 표출할 때 비로소, 4·3을 치열한 문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과 같이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4·3의 역사와 그것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문학 역시 그 모습을 달리 보여 주어야 한다. 다음에 인용된 보도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4·3 시의 의미 흐름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제주 4·3사건의 평화적 해결정신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11일 세계평화의 섬 지정 계획에 4·3의 정신을 담아 평화를 체험·교육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평화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3 사건 55년만인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함께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평화의 섬 계획 역시 4·3사건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도민 의지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세계평화의 섬 지정계획안 확정에 앞서 4·3 관련 내용을 평화의 섬 계획에 반영함은 물론 평화의 섬 지정의 역사적·실체적 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4·3사건 해결과정을 제주 평화의 섬 지정의 당위성과 연계시키고 동시에 4·3평화공원 조성, 제주밀레니엄관 등 평화학습의 장과도 연계관계를 정립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학술적 개념면에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4·3과의 연관 관계, 4·3 정신을 추가적 평화실천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²⁷⁾

인용 글을 통해 나타나는 제주 정신은 바로 ‘상생과 평화’이다. 이러한 제주 정신은 이미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과거 국가권력의 자행한 폭력적 태도들에 대한 사과²⁸⁾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개될

27) 한라일보, 2004. 01. 12.

28) 2003년 10월 31일 제주 4·3사건에 대한 대통령 발표문을 통해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요약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도민과 유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55년 전 평화로운 이곳 제주도에서 한국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중 하나인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국제적인 냉전과 민족 분단이 몰고 온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습니다.(…중략…)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중략…)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4·3 시의 의미 방향은 평화와 인권의 측면에서, 화해와 협력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 4·3 시의 의미방향의 이렇게 전개될 때 4·3 문학은 더 이상 제주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학이 아니라 더욱 보편적인 문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누가 말리겠어요?
 漢拏山 기슭 깊숙이
 어진 祖上世世 고요로운
 땅, 갈고 씨 뿌려서
 푸른 大地 열음으로
 그득 채워질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歷史를.

— 오용수, 「개똥밭에도 이슬은 내린다」 부분

이 시에는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푸른 대지의 열음” 처럼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 제주도민은 한라산이 주는 따뜻함과 고요함 속에서 제주도민답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4·3의 역사가 참혹함의 기억이라면, 그 치유의 방법으로 시인은 사랑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인은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로 규정한다. 다음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3사건의 소중한 교훈을 더욱 승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겠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이 땅에서 모든 대립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서 동북아와 세계화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폐허를 딛고 맨 손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를 재건해 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인권의 상징이자 평화의 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에 제시되는 시에는 상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4·3 때에도 사람들은 죽창을 들었다
그 중에는 억울해서 죽창을 든 사람도 있었다 한다

그 모든 원통함들이 대숲에는 살아 있다
그들의 뼈 아픈 목소리가 댓잎 끝에 서걱인다

아,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야 한다
알고 보면 다 인정 나누며 살던 이웃인 것을

서로 어우러져 살기 위해
대숲에는 대나무들이 뻗뻗이 모여 살고

우리는 여기 고단한 몸 비비며
두 눈 부릅뜨고 곳곳하게 살아가려 애쓴다

— 김광렬, 「대숲에서」 부분

이 시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4·3 때 죽창을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대숲을 통해 현재로 환원된다. 그 환원의 과정에는 뼈 아픈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시인은 “슬픔은 없어야 한다”는 단호한 어조를 통해 뼈 아픔을 치유한다. 그 아픔의 치유는 대나무처럼 뻗뻗이 어우러져 모여 살면서 느끼는 이웃 사이의 정이다. 결국 시인은 이러한 인식을 통해 더 이상의 분열이 아닌 상생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인의 의지는 결국 대숲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의미를 과거의 폭력적 모습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인의 지닌 울 곁은 모습으로 치환시키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작품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쫓는 자는 쫓음으로 쫓아가고
쫓기는 자는 쫓김으로 쫓겨가고

만나면 사랑해야 될 인간끼리
 패를 가르면 싸움이 있을 뿐
 싸우면 승자와 패자를 가름할 뿐
 승자는 살고 옳고 언제나
 패자는 죽고 나쁘고
 하느님 말씀도 필요 없어진 세상
 그러나 우리는 한 번씩 죽어
 말씀에게로 간다
 사람……사랑

— 문충성, 「4월제 4」 부분

이 시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사이의 긴장을 통해 전개된다. 시인은 시의 상황을 “패를 가르면 싸움이 있을 뿐”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시어로 제시된 “패”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이데올로기는 “만나면 사랑해야 될 인간”세상을 “하느님 말씀도 필요 없어진 세상”으로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시인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옳고/나쁨’이라는 이항적 요소가 만들어낸 4·3의 참혹함이다. 시인은 “그러나”를 통해 참혹함의 치유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사람……사랑”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적 가치이다. 시인은 “말씀”이라는 절대성의 상징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 사랑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시인의 인식은 4·3시의 의미를 또 다른 측면에서 부여하고 있다. 다음 제시된 작품 역시 4·3시의 의미 영역을 넓히는 예가 된다.

아하, 제상 받아 앉은자리에서
 산담 두른 붓분에서
 목줄 돈위 당당히 말하자던
 악독한 시절의 못다 한 이야기
 한 줌 재도 추스르지 못해
 제주 바다 푸른 물살에
 혼백으로 떠다니더니

기어코 붙잡아 오르는구나.
탄탄한 밧줄 질끈 잡고
분단 조국을 넘는
구름으로 바람으로 솟구치는구나
썩어 밀거름 자양분 삼아
뿌리를 뺏고 가지를 드리워
너나 없는 세상의 빛살로
이제야 뚜벅뚜벅 걸어오는구나

— 강덕환, 「다랑쉬굴」 부분

이 시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대상은 다랑쉬굴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혼령이다. 하지만 시인은 그 혼령들을 처참과 참혹에 의해 “제주 바다 푸른 물살에 혼백으로 떠다니는” 희생된 참혹함의 기억에서 분단 조국을 뛰어 넘는 화합의 대상으로 창조한다. 그 속에서 시인은 제주 정신을 내포한다. 그것은 “구름으로 바람으로 솟구치는” 대상이며, “너나 없는 세상의 빛살”인 사랑이다. 그러기에 다랑쉬굴에서 죽어간 영혼들은 비로소 “제상 받아 앉은자리에서 산담 두른 봉분에서 목줄 돌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그 속에 드리워진 당당함은 “너나 없는 세상의 빛살로 이제야 뚜벅뚜벅 걸어오”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

작가는 역사라는 하나의 소재를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 그 역사로 인한 아픔과 그 치유의 방법을 독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작품에는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4·3이라는 역사가 주는 ‘참혹과 아픔’에서 벗어나려는 사랑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은 ‘상생과 평화’라는 4·3 시의 영역을 형성한다. 이런 상생과 평화의 정신은 4·3을 더 이상 제주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문제, 인류적 문제로 확대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IV. 에필로그

4·3 문학의 흐름에서 작가는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롭게 4·3을 바라보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때 비로소, 4·3 문학은 제주문학의 한 축에서 벗어나 민족문학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금까지 4·3 문학 속에서 4·3 시의 의미 흐름은 크게 ‘참혹함의 기억’, ‘해원’, ‘상생과 평화’로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4·3 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보다 확대된 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그리고 4·3 시의 특수성을 문학이 보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3 시는 또 다른 의미 영역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제주 작가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4·3의 역사는 제주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밝히는 일련의 작업들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세계사적 흐름이나 한국사의 흐름에서 4·3과 같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이데올로기의 갈등, 집단 학살 등에 대한 역사를 밝히는 작업들은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 규명의 작업에서 필요한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 문학이다. 문학은 역사를 보완하거나 그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는 보조 양식이 아니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대의 역사적 실상은 문학작품과의 만남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

4·3을 기억하고 그것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은 작가에게 있다. 작가가 쓴 작품이 내용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적 형상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면 4·3 문학을 비롯한 4·3 시는 지금까지의 의미영역에서 발전된 새로운 의미 영역을 형성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김경훈. 『고운 아이 다 죽고』, 도서출판 각, 2003.

김경훈. 『한라산의 겨울』, 삶의 보이는 창, 200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2003.

제주도교육청. 『아픔을 딛고 선 제주-제주4·3사건교육자료집』, 2004.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 I』, 1996.

제주문인협회. 『제주문학전집 II』, 1996.

제주작가회의. 『바람처럼 까마귀처럼』, 실천문학사, 1998.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제8호』, 2001.

한라일보. 2004. 01. 12일자.

2. 단행본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병택, 『한국문학과 풍토』, 새미, 2002.

문학과 문학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 삼지원, 1998.

제주4·3 제50주기기념사업회.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8.

제주4·3연구소. 『4·3과 역사』, 각, 2003.

제주작가회의.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각, 2004.

3. 논문 및 평론

강영기. 「4·3시의 시대정신」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각, 2004.

권귀숙. 「제주 4·3의 기억들과 변화」 『4·3과 역사』, 각, 2003.

김동윤. 「4·3문학 반세기」 『4·3의 진실과 문학』, 각, 2003.

김병택. 「4·3회곡 또는 장르 설정의 당위성」 『한국문학과 풍토』, 새미, 2002.

. 「역사적 진실과 시적 진실」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각, 2004.

김성혜. 「근대성과 폭력: 제주4·3의 담론정치」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8.

김영환. 「기억으로서의 문학」 『문학의 이해』, 삼지원, 1998.

김진하. 「4·3사건의 증언과 시」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각, 2004.

문혜원. 「4·3을 소재로 한 시들의 유형과 특징」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각, 2004.